

< 서울시가 묻습니다 2차 시민참여 이벤트 당첨 결과 공개 >

○ 이벤트명: 개학 후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?

○ 기 간: 2020년 3월 27일 ~ 4월 25일

※ 서울시가 묻습니다 2차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께 축하드리며, 앞으로도 민주주의 서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

당첨되신 분은 2020년 5월 15일(금)까지 이메일(jh0205@seoul.go.kr)로 아래사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1. 성명
2. 아이디
3. 전화번호(핸드폰)

※ 기한 내에 정보를 보내주시지 않는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※ 당첨자는 4월 26일 0시(=오전 12시) 기준 최다 공감수로 선정되었습니다.

< 당첨자 명단 (총20명) >

뽀뽀맘 (공감수 9), 서울시의시민 (공감수 8), 애돌엄마 (공감수 7),

나비보벳따우 (공감수 7), 나만의 놀이 (공감수 7), 그린나래(공감수 7),

IT와틈새여행 (공감수 6), 박** (공감수 6), 김** (공감수 6), 안** (공감수 5)

개미 (공감수 5), 민경 (공감수 5), 코로나씩빠2 (공감수 5), 고** (공감수 5),

Luoes (공감수 5), 이** (공감수 4), Ro (공감수 4), 정은영 (공감수 4)

터벌 (공감수 4), 이** (공감수 4)

※ 닉네임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름이 **처리되며 첨부파일 캡처 댓글을 통해 당첨여부 확인 필요



로그인



뽀뽀맘 | 2020-03-28 09:19:02

9

고등학교에서 중학교,초등학교 순으로 순차 개학.초등학교는 학년별까지 순차적 개학을 원합니다. 초등저학년은 하루종일 마스크 쓰고 생활하기 너무 힘이 들어요. 친구들과 한참 활동할 시기에. 수업이 제대로 진행될까 싶
자세히 보기 +



서울시의시민 | 2020-04-01 19:21:30

8

아직은 온라인개학도 시스템 구축이 덜 되어서 차라리 5월 중으로 개학을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



애들엄마 | 2020-03-31 23:28:46

7

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교실 환경도 바뀌었으면 합니다.
예를 들어 책상과 책상 사이의 간격을 넓히고, 학교 입구에 열 감지기를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

나비보벳따우 | 2020-03-31 23:13:46

7

저는 온라인 개학에 한표입니다.
ebs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고,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출석체크를 문자 같은 방법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



나만의 놀이 | 2020-03-31 23:11:21

7



로그인



나만의 놀이 | 2020-03-31 23:11:21

7

오전/오후 학교 등교를 제안합니다.
재학생의 반은 오전에 등교하고
자세히 보기 +



그린나래 | 2020-03-29 18:01:39

7

체육과 음악 같은 경우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(수행평가 등으로) 몸을 써야 하는 경우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(등
척성 운동)을 해서 동영상 올리기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. 노래도 마찬가지로 동영상으로 올리는
자세히 보기 +



IT와틈새여행 | 2020-03-31 23:52:27

6

예전에 오전반, 오후반이 있었습니다. 온라인 수업도 좋지만 어린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 쉽지 않습니다.
부모도 상주해야하구요.
자세히 보기 +



박** | 2020-03-28 14:37:51

6

등교시간에 정문에서 체온을 재고 입장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인력(청년, 시니어 아르바이트 등)과 비용을 지원해
주면 좋겠습니다.



로그인



김** | 2020-03-28 11:29:15

6

당장 입시를 앞둔 고3부터 개학했으면 좋겠습니다. 개학이 미뤄지면 방학이 더 줄어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짝아진 방학이 큰 부담이 됩니다. 이후 상황에 따라 다른 학년도 개학하는 것이 학교에서도 관리를 하기 편
자세히 보기 +



안** | 2020-04-03 11:10:46

5

1. 손 씻는 시간 지정
어린 학생들일 수록 손 씻기를 소홀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불소 소독하는 것 처럼 교사 관리 하에 정기
자세히 보기 +



개미 | 2020-03-31 11:50:01

5

접촉을 비하는게 예방의 관점이라면 우선 초,중,고, 대학등 기간을 일주일 정도 둔 순차적 개학을 하면서 동시에 오전반 오후반 혹은 월수금 등으로 나뉘어 온라인 수업과 병행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



민경 | 2020-03-31 09:49:22

5

한 반이 30명이라고 할 때 앞번호 15명:A반, 뒷번호 15명:B반.
월, 화, 수, 목(오전시간) : A반
자세히 보기 +



로그인



코로나씩빠2 | 2020-03-29 12:14:36

5

집에 아이가 3명인 집은 컴퓨터가 3대여야만 수업이 가능한것 처럼 온라인개강은 좋은 취지이지만 하기는 어렵 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반에 30명이면 1/4만 등원 할 수 있게하며 온라인과 병행을 하는건 어떨까요

자세히 보기 +



고** | 2020-03-29 10:42:14

5

6살 아이가 병설 유치원에 재학 중인 엄마입니다. 따라서 유치원 아이 대상으로 하는 제안을 올려봅니다.

자세히 보기 +



Luoes | 2020-03-28 15:01:46

5

비말로 인한 감염이 우려되므로 수업 시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고 판서, 필기로 진행해야 합니다. 학생도 일체의 질문, 잡담, 수업 진행 등 기타 발언을 삼가고 반드시 필담으로 소통해야 합니다. 예체능 수업, 특히 음악이나 체

자세히 보기 +



이** | 2020-04-01 16:33:52

4

온라인개학과 등교는 아직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

자세히 보기 +



로그인



Ro | 2020-03-31 21:28:24

4

[자율 학기제로 변경을 제안합니다 (2020년 1학기 온라인 강의 병행)]

자세히 보기 +



정은영 | 2020-03-30 21:02:47

4

현재는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는것을 단순하게 생각하기어렵다. 혹시라도 코로나19에 노출이 한명이라도 된다면 순식간에 퍼질것은 자명하고 어린이의 가족포함 같은반 친구들까지 너무나 파급력이 크다. 만약 어린이들

자세히 보기 +



터벌 | 2020-03-28 23:32:06

4

개학을 한 경우에 만일 학생이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거나, 아프서 학교에 못나오게 되더라도 학생 출석기록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. 만일 출석에 대해 내신상 불이익이 있다면, 증상이 있거나 조금 아프더

자세히 보기 +



이** | 2020-03-28 10:23:34

4

어린친구들이 학교에서 4~5시간 마스크쓰고 있다는게 너무 가슴 아픡니다.게다가 쉬는시간이어도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죠...ㅠ 손씻기도 한두명도 아니고 30초씩 줄서서 힘들 거 같구요.그냥 지금처럼 ebs수업으로 진

자세히 보기 +